

사우회 창립 27주년 기념 단합대회, 문화동산에서 열려



푸르름이 한층 짙어가는 5월 18일 오전. 화창한 날씨 속에 사우회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는 회원 단합대회가 양주 MBC 문화동산에서 열렸다. 원근 각지에서 참가한 300여명의 회원들이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건강을 묻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이현우(ANN)회원의 사회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국민의례에 이어 문화동산 숲속에 넓게

퍼져나가도록 사가社歌를 2절까지 제창할 때는 참가자들 모두 세월의 강을 건너 현역 시절의 기분을 만끽하는 감동을 느꼈다.

이연현 사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양주 문화동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고 또 큰 축복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 삶의 터

전이었던 문화방송이 온갖 주변 환경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어 “풍성한 자리를 만들어 준 본사 김장겸 사장과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MBC를 대표해서 백종문 부사장은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꾸신 문화동산에서 모시게 되어 한층 더 영광”이라고 말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방송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패기와 노력으로 이겨 내셨던 선배님들처럼 본사 임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온갖 난관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면서, “5월 31일 지상파 UHD TV 개국을 계기로 새로운 MBC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동행한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도 “선배님들의 격려 속에 임직원들이 일

치단결하고 더욱 힘을 쏟아 본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필가로 널리 알려진 유혜자(편제) 회원의 건배제의 후 생갈비와 각종 음료, 주류 등으로 차린 풍성한 식탁에서 회원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며 건강애기와 추억 어린 옛날 얘기로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마다 그랬듯이 올해도 MBC 의무팀 이유진 간호사는 회원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주고 구급약을 나눠주는 등 회원들의 건강돌보미의 역할을 해 회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예년에 했던 행운권 추첨 등의 여흥은 없었지만, 사우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버스에 오르는 회원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물 흐르듯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못내 아쉬워했다.

MBC, 퇴직사우 경조기준 변경

MBC가 그 동안 퇴직사우의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또는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결혼 시에 보내던 화환(조화), 경조금 및 장례 물품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본인 사망 시 조화만 1점 보내기로 퇴직사우 경조 기준을

변경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본·관계회사 임원으로 퇴직한 사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사우회가 지원하는 경조사는 회무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박종규 부회장, 상속세 강의

박종규(기술) 사우회 부회장이 사우회원들을 대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강의는 6월 8일(목)오후 2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창간 28주년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동양디지털

1991년 5월 1일 설립되어 방송용 전문 램프 및 Multi Media용 레이저 광 픽업, 광 통신용 모듈 제조용 장비를 필두로 각 방송업계 및 통신 업계의 주목을 받아오다 1995년 세계 굴지의 프로페셔널 오디오 업체인 studer와의 국내 대리점계약을 통해 Professional Audio System분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디오 업계의 선두 주자로써의 입지를 넓혀 오면서 방송용 송신기 및 디지털 중계차로 기술력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에 자만하지 않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며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 방송 및 오디오 환경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여 국내의 방송 및 오디오 업계에 그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양 디지털
동양디지털주식회사 (주) 동양디지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11층 6호
TEL 02-705-1332-3 FAX 02-705-1334

낚시대회 마쳐



2017년 봄철 낚시대회가 4월 21일 오전 6시 김포시 봉성리 낚시터에서 열렸다. 25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안호선(관리)회원이 25cm의 붕어를 낚아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21.5cm의 붕어를 낚은 박병선(편제)회원, 3등은 정인영(편제)회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75cm짜리 잉어를 낚은 이정오(기술)회원은 행운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이 끝

난 후 사우회가 제공한 오찬을 끝으로 회원들은 곧 다가올 밤낚시를 기약하면서 아쉬움을 달렸다



우승을 차지한 안호선 회원

봄철 등반대회 가져

2017년 사우회 봄철 등반대회가 4월 26일 북한산 둘레길 2구간에서 열렸다. 67명이 참가한 이날 산행은 오전 10시 우이동 이 준 열사 묘역 입구에서 시작해 솔밭공원을 거쳐 우이동 종점에 이르기까지 6.1km 구간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회원들은 이 준 열사 묘소와 광복군 합동묘소 등 독립유공자 묘역과 국립 4.19 묘지 일대를 거쳐 솔밭 근린공원 구간을 산행하면서 신록이 짙어가는 숲속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산행의 가장 연장자이신 서규석 고문(89세)께서 완주하셨음은 물론, 뒤풀이에서 우렁찬 건배를 제창하셨으며, 여성회원으로는 유일하게 대전의 강복주 회원이 지난 가을에 이어 이번에도 참가해 회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최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에 대회에 참가한 석남수(기술) 회원은 '가을철 등반대회에도 꼭 참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산행



을 마친 회원들은 사우회 단골식당인 거북이네집에서 두부전골, 파전, 도토리묵 등을 안주삼아 술잔을 나누는 뒤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골에서 산다는 것



최 준 식(보도)

10여년 전,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골에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대지와 밭을 합쳐 4백평, 100여 미터 길 건너에 북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곳입니다. 2년 전부터 아내가 그 땅에다 집을 지어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해보는 얘기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땅에 미술관(?)같은 집을 짓고 드디어 지난 해 10월 4일, 70년간의 도시생활을 마감하고 시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10월은 추수기였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년 농사를 수확하느라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사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눈이 내릴 때 마다 폭 5미터 길이 50여 미터의 길 위에 쌓여있는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눈 치우기는 장

난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눈을 '하늘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라고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당연히 경비원들이 눈을 치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눈을 치워보니 그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경험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마석이 생활권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자동차가 고장 나도 마석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마석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자동차가 없으면 끔찍할 수 없습니다.

신문 구독을 신청했더니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곳이다 보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뜸해지고, 사우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술을 마셔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은 6시쯤 일찍 먹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저녁을 일찍 먹다보니 본의 아니게 체중이 3Kg 정도 빠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혈당관리가 잘 되고 있고 3개월마다 체크하는 당화혈색소 수치

가 4월 현재 5.7로 나타나 의사로부터 혈당관리 잘 하고 있다는 축하스러운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두 딸과 손자, 손녀가 주말마다 와서 하루를 보내고 갑니다. 그들과 식탁에 마주 앉으면, 바로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들이 마치 멋진 야외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큰 아이가 4년간의 출산과 육아휴가를 끝내고 오는 8월에 복직하게 되면 손자, 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넓은 마당과 밭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마음껏 뛰어놀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서울이나 일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것도 시골에서 사는 특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 율리 를 비롯해서 주변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영산홍과 철쭉 등 갖가지 꽃들이 만개해 눈과 마음을 즐

겁게 해줍니다. 100여평 되는 밭에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품종선택과 모종은 아내 담당이고 저는 물 주는 역할입니다. 농사가 처음인이라 시행착오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을 수확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았던 어떤 분이 "이 곳에서는 사는 것만으로는 심심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한 시간만 나가면 주변에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면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비롯해서 축령산자연휴양림, 양수리, 한음 생가, 김유정역, 몽골문화원 등 가봐야 할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봄철 농사준비가 끝나면 아내와 손자, 손녀와 함께 이곳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시골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도시와 시골의 삶의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경·조사

■ 팔순 ■

김성조(부산)06/07 강규철(미주)06/15 김시용(편제)06/21
장용택(관리)06/28 전영수(편제)07/08 고희철(편제)07/20

■ 고희 ■

구본홍(보도)06/05 윤재민(편제)06/30 오주환(업무)07/17
이진섭(편제)07/20 강복주(대전)07/25 김기덕(편제)07/25
진두범(관리)07/30

■ 회갑 ■

성경섭(보도)06/09 심원택(보도)06/09 우대희(보도)06/11
김종남(기술)06/17 이희재(편제)06/24 이여춘(편제)07/06
이흥철(기술)07/06 김정욱(편제)07/08 정운현(편제)07/14
이수용(보도)07/25 최태규(업무)07/30

■ 결혼 ■

황용기(편제)장남03/26 신민철(관리)장남04/08
류재영(편제)장남04/15 고창근(ANN)장남04/15
양운수(기술)장녀04/22 김재형(관리)·봉현숙(편제)딸04/29
최양묵(편제)·정상자(편제)장남05/21 성경환(ANN)딸06/03
장수봉(편제)3녀06/04 김종길(편제)장녀06/10

■ 부음 ■

권태섭(기술)장모상03/15 박홍배(전주)장모상03/17
이옥진(미주)모친상03/18 박승기(관리)장모상03/20
민용기(편제)장모상04/01 박은숙(관리)시모상04/03
박문식(대구)장모상04/09 구본학(보도)장모상04/15
이걸범(편제)모친상04/21 김영만(관리)부친상04/28
윤병건(보도)장모상04/28 박래양(보도)모친상05/02
박종덕(편제)모친상05/03 이형관(보도)장인상05/03
윤남현(대전)모친상05/04 안영제(기술)모친상05/07
배대윤(보도)모친상05/08 변영우(편제)부친상05/18
양진수(ANN)모친상05/1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효섭(前 전무)

4월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80년 7월부터 1985년 2월까지 MBC 전무로 재직했다. 대한산악연맹 회장을 지냈고 한국등산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을 역임했다.



김경식(편제)

3월 2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대동맥 이상으로 심장수술을 했는데 뇌에도 이상이 발견돼 수술한 후 1개월여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별세했다. 1964년 입사하여 예능 PD로 일했으며, TV제작 2부장 등을 역임하고 1982년 1월 퇴직했다.



이종구(관리)

4월 3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3월 초 위암이 발견돼 한 달여간 투병했다. 1969년 8월 비상계획부에 입사해 시흥 송신소, 여의도 사옥 등에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안효진(관리)

4월 27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1979년 시설운용부에 입사해 기계설비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MBC미디어텍으로 옮겨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황효성(관리) 010-2244-6795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22

■ 평생회비 ■

■ 연회비 ■

3월 : 강유현('17) 권태규('17) 권태환('17) 김영효('07~'11, 80세 납부 끝)
김종환('17, 80세 납부 끝) 김재현('17) 노홍식('17) 박창순('17)
박해선('17) 방운식('16~'18) 서상웅('17) 신해명('17)
우종범('11~'32, 80세 납부 끝)
유민환('17) 이상세('17) 이성구('17) 이승재('17) 이양휘('17)
이유철('18~'19) 임성전('17) 정동영('17) 정봉일('17)
정태웅('16~'17) 조무영('17) 차명륜('17) 최홍림('17)
황종휘('17) 황효성('17)
4월 : 고창근('16~'17) 광영범('17) 김강정('17) 김선희('17)
김종세('16~'17) 김채영('17) 남궁미('17) 노영인('17) 박민정('17)
박종순('17) 박찬순('17) 반주원('17) 서은선('17) 서정훈('16~'19)
안종순('17) 안주희('17) 이기선('17) 이명순('17) 이원형('16~'17)
이인숙('17) 이준호('15~'16) 임국희('17, 80세 납부 끝)
임동훈('17) 정영희('17) 천영숙('16~'17) 최운형('17) 최화숙('17)
황경자('17)
5월 : 김우룡('16~'18) 신명현('17) 이기준('17) 정상자('14~'16)
정승호('17) 진성창('17, 80세 납부 끝)
채애림('16~'17) 황진욱('17)

번호 / 주소 변경

특별 :

편제 : 권혁준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432번길 15
김영효 은평구 진관2로 111-7
김일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
김정수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4
변영우 고양시 일산구 강송로 33
이임생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3번길 11
장수봉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97
정호식 서초구 효령로 72길 14

보도 : 김창섭 010-8766-8381
유무정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윤여복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
이승열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이준호 010-4064-4068

ANN : 차인태 중구 정동길 2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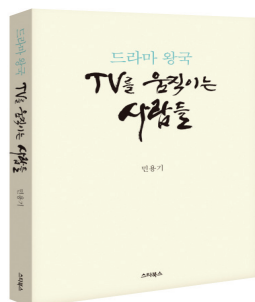
기술 : 서태건 서대문구 북아현로 29
이경환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5

업무 : 심준보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관리 : 박한성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정길
송석철 마포구 성암로 267
이수관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4
이종철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장용택 은평구 통일로 660

대구 : 박세림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24

회/원/동/정



민용기(편제)

자전적 다큐 'TV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출간했다. 제작 이사로 근무했던 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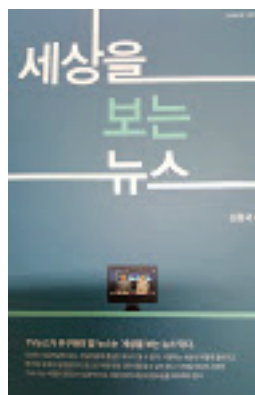
년대 MBC 드라마 제작에 얹힌 얘기들로, 이미 사우회보에 일부 소개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라면 공감할만한 얘기들이 많다. 6월 1일(목) 3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1층 카페 산다미아노에서 출판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갖는다.



김종국(보도)

'세상을 보는 뉴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방송저널리스트 지망생, 현장 기자, TV뉴스에 관

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고려대 미디어 학부 교수로 재직 중 강의한 내용을 정리했다.



박기병(관리)

4월 13일 재외 동포와 고국을 잇는 창구로서 <재외 동포저널> 4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둔 강릉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현재 재외동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장이다



윤정식(보도)

2월에 OBS 대표 이사를 퇴임하고 3월에 경기 지식 캠퍼스 단장으로 취임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수원에 있는 전 내부 지방행정연수원 자리에 있다.



박선영(보도)

5월 22일 대학로 TOM극장에서 '물망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물망초합창단 공연과 소월시 낭송회도 열리는데 총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겸한다.



이상이(보도)

지난 3월 23일 주총에서 iMBC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며 앞으로 iMBC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하게 된다. 이 회원은 2013년 말 국장급 심의위원으로 MBC를 퇴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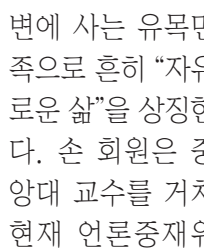
박노홍(보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비상임 이사를 거쳐 3월 29일 울산방송(UBC)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방 민방의 취약한 경영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으며 임기는 2년이다.



손관승(보도)

일곱 번째 저서 "투아레그 직장인 학교"를 출간했다. "투아레그"란 사하라사막 주



변에 사는 유목민족으로 흔히 "자유로운 삶"을 상징한다. 손 회원은 중앙대 교수를 거쳐 현재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안홍엽(전주)

5월 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별과 사랑과 그림과"라는 제목의 산문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안 회원의 증조부 염와 안치수 선생의 한시 100수를 뽑아 번역한 "염와집"(사진)도 함께 선보였다.



이상운(기술)

5월 19일부터 25일 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국제포토페스티발에 12점의 사진을 출품했다.



이 전시회는 5월 17일 밤 11시 40분에 KBS TV '문화의 향기' 프로그램에서도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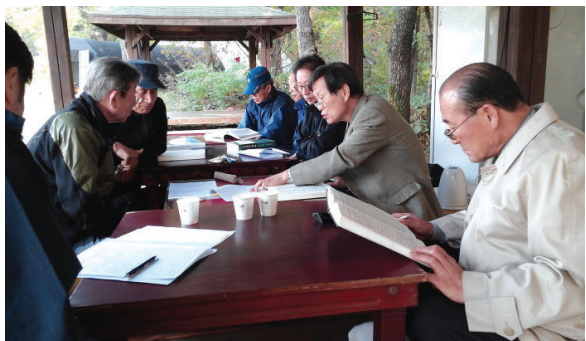
이금희(편제)

MBC 사장을 그만둔 이후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화백이 6월 8일부터 2주간 동안 대학로에 있는 <샘터 갤러리>에서 괴테의 시 '그림을 아는 자 만이'를 주제로 한 31점의 작품으로 다섯 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동/호/회/소/식

한문동호회 기초반 개설



한문동호회(회장 권혁화)가 오는 6월1일부터 기초반을 개설해 강의를

시작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며 교재는 명심보감이다. 한문동호회는 현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중급반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사무처나 권혁화 훈장(010-3739-0889)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광회 4월 모임 가져



광고인들의 모임인 문광회(회장 한웅희)는 4월 13일 잠실 석촌호수에서 벚꽃놀이를 겸한 정례 모임을 가졌다. 석촌호 주변을 한 시간 가량 걸으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부대행사를 참

관했으며 5월에 여주 남한강 유역 문화유적지(신록사, 명성황후 생가 등)

를 탐방하는 일정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우회 신임 회장 문정철 회원



기술부문 퇴직자 모임인 기술인동우회(기우회)는 3월30일 여의도에서 1/4분기 총

회를 열고 문정철 회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최 천 사우회 이사를 선출했다. 문화장은 기술본부장, 미디어텍 사장 등을 역임했다.

문비회 새 총무 유재식 회원



문비회(회장 조한건)는 3월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유재식

회원을 신임 총무로 뽑았다. 문비회는 비상계획부 출신 퇴직 사우 모임으로 3개월에 한번씩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서 경 주(편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무차별 하며 영원히 지속 되는 것은 아

무 것도 없다. 퇴직은 상승해오던 궤적의 갑작스런 멈춤이고 추락이자 늙어가는 과정의 한 단면이다. 나이가 들면 그만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나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순환논법의 대답이 돌아올 뿐이다. 묻지 않는 편이 좋다.

3년 전 회사를 떠났다. MBC에 기댄 만 31년 밥벌이의 끝이었다. MBC에 취직하여 노동을 판 대가로 나와 내 가족들이 밥을 먹었다. 밥벌이는 영광보다는 치욕의 과정이다. '왜 치욕이냐'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자존적 삶의 태도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밥벌이의 치욕도 끝났다. 가처분 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가처분 시간은 크게 늘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그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으며 전기와

수도, 전화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소득과 삶의 질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부탄이나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도 없다. 나만의 착각이 아니길 바라지만 소득이 줄었는데도 삶의 질은 높아진 것 같다. 다행이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만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밥벌이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와 자존을 유보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방적이지 아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등 뒤로 욕을 얻어먹는 것 역시 치욕에 다름 아니다. 항상 마음을 움츠렸던 조직과 위계의 질곡에서 해방되어서 그런지 보는 이들과 표정이 밝아졌다고 한다. 걸려오는 전화도 많이 줄었다. 번다했던 관계들이 자연스레 정리되면서 어휴 굿 멘(a few good men)이 가려지게 되었다. 나는 일을 핑계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홀히 해 왔던가!

그리고 퇴직 이후에 지운 수많은 전화번호들에 담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편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던가! 가족을 비롯해서 영혼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많아지고 깊어졌다.

퇴직한 뒤에 아내와 여행을 자주 다녔고 자주 다니려고 한다. 돈 문제는 쓰기 나름이다. 대한민국 서울의 물가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높은 것은 해외여행자들에게는 축복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숙소를 잡고 현지인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해외여행은 유한 계층의 호사와는 거리가 멀다. 항공사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수기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면 놀랄 정도로 싼 항공권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고생하며 나다닐 필요가 있냐고? 글썽 고생을 피하자면 아무리 호사스런 여행도 집보다는 편치 않을 것이니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이다. 다만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집 떠나 고생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운데 하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라.

시간 많을 때 쉽고 값싸게 놀 수 있는 게 영화관람이다. 평일 조조 영화를 관람하러 가면 영화관은 마치 내 전용관 같다. 평일 오전시간 대에는 어차피 많은 관객이 들지 않을 영화를 제한적으로 상영한다. 다양성을 가장하려는 멀티플렉스들의 술책이지만 시간 많은 실업자

들에게는 축복이다. 얼마 전에는 작년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를 봤다. 영국 중부 뉴캐슬을 배경으로 병들고 가난한 50대 후반의 홀아비 목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사회적 부적응자로 전락해가는 노인과 빈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남의 나라 일(혹은 남의 일)같지 않게 보였다. 주인공의 대사 가운데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거야"(When you lose your self-respect, you're done for)가 가슴을 울렸다. 요즘은 극장에서 종영된 영화도 IPTV로 볼 수 있다. 한번 보시길 감히 권해 드린다.

3년 전 물러나게 됐을 때 나는 이전보다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됐다면 나는 일을 계속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는 비자발적 실업자다. 그러나 직장에 기댄 밥벌이를 끝낸 뒤에야 비로소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 그것은 하나의 역설이지만 진정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만하면 감사한 것이다.

한문漢文은 인문학의 으뜸이다.



권 혁 화(ANN)

사우회에 한문동호회가 생겨 한문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당시 이진세 훈장은 '한문공부는 10년은 돼야

조금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늘 말씀하셨다.

初學三年 天下無敵 再修三年 寸步難進(처음 배우는 3년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고, 다음 3년은 촛보를 나아가기도 어렵다)

한문은 조금 배웠을 적에는 자신만만하다가 배울수록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지금의 내 처지가 그러하다.

人之欲孝其親은 心雖無窮이나 而分則有限이니 得爲而不爲와 與不得爲而爲之는 均於不孝라 所謂以禮者는 爲其所得爲者而已矣니라(사람이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은 비록 끝이 없으나 분수는 한도가 있으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데도 하는 것은 똑같이 불효다. 이른바 예로써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따름이다)

'논어 장하주'에 나온 내용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효도의 방법을 알려준 셈이었다. 일시적으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야 한다.

古之君子所以汲汲於學者는 不爲其終有異於物而勤이라(옛날의 군자가 학문에 급급했던 것은 끝내 남과 다름이 있음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썼던 것이 아니다) 故亦不爲其終無異於物而肆也며 不爲其有名而勸이라(그러므로 끝내 남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방자(방사)해지지 않으며 그 명성 때문에 권면(노력)했던 것이 아니다) 故亦不爲其無名而沮也며 不爲其有利而爲라(그러므로 명성이 없다고 해서 저상(기가

겪임)되지도 않으며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故亦不爲其無利而止也니 是其設心이 蓋儻然一無有所爲者오(그러므로 이익이 없다고 그만두지도 않으니 이는 그 마음가짐이 대개 무심하여 목적(위하다)을 두는 바가 없고) 獨以天理當然而吾不得不然耳라(단지 천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이다.)

이것은 '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은 하늘의 이치상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受教亦曰數니 數於學之道에 半之니 半須自得이라(가르침을 받는 것도 효라고 하니, 가르침은 학문의 방도에 있어서 반을 차지하니, 반은 모름지기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敎然後知所困이니 是學之半이라(가르친 뒤에야 <지식의> 곤궁함을 아니 배움의 절반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로 하여 '가르

친다는 것이 곧 배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우회 외에도 사는 동네에서 한문교실을 열어 동네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

不先其易而先其難이면 未有食其效者라 故로 傳曰登高必自卑하고(쉬운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먼저 잡으면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중용)에 이르기를 높은 곳을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하고) 行遠必自邇라 足下不見夫飲者哉아 雖能飲一石乎나 自一鍾二鍾으로 間以肴若膳하고 終至盡一石이라 未見一吸而吞一石者也라

(멀리 가려거든 반드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라. 족하는 술 마시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비록 한 섬을 마실 수 있더라도 한 잔 두 잔부터 시작하여 간간이 안주와 반찬을 먹고 끝내 한 섬을 다 마시는 것이다. 한 번 들이킬 적에 한 섬을 삼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공감이 되는 사진들 있으시죠? 사진 자체에 역사(히스토리)와 애깃거리(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른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고 그동안 덮어뒀던 옛 앨범을 뒤적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찾아낸 혼자만 보기 아까운 사진들을 같이 감상하시면 어떨까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진숙(보도)



1991년 4월이었다. 1991년 1월 17일에 발발한 걸프전은 미국의 가공할 만한 전력에 비례해 빠른 속도로 끝났다.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42일간의 전쟁이 끝나고 MBC는 전후 상황 취재를 위해 필자를 취재기자로, 서태경과 황성희 기자를 촬영팀으로 구성해 다시 이라크로 파견했다.

걸프전 당시에는 초점이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중심부에 맞춰졌지만, 다시 파견된 4월에는 남부 시아 거주지와 북부 쿠르드 지역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작전 기간 중 반정부 활동을 펼쳤던

쿠르드와 시아파들은 전쟁 종료와 함께 '사담 후세인' 정부로부터 강력한 진압 작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북부 쿠르드 지역으로 기억되는데, 대규모 유전이 있었던 키르쿠크나 술레마니아가 아닐까 싶다.

전쟁을 상징하는 존재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인'이라면, 상응하는 무기의 상징물은 탱크다. 군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탱크 위로 올라갔다.

미군이나 한국군이라면 어렵도 없었겠지만, 당시 이라크 군대는 이런 '응통성'을 허용할 만큼 약화되어 있었다. 포격이 가해지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겁싸게 몸을 피하곤 했는데, 작전 후 거리에서는 여유롭게 '탱크샷'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전쟁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다.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모험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후세인의 체포와 교수형으로 끝났지만 중동에서 평화는 여전히 멀리 있는 존재다. '아랍의 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겨줬다. 리비아의 '가다피'는 사라졌지만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시리아 내전은 현재진행형이며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는 검은 깃발을 휘날리며 공포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최천(기술)



'88서울올림픽이 끝난 2년 후인 1990년 3월 13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방송과 관련한 모든 용어를 총 정리한 '방송용어사전'을 방송 최초로 발간했다. 이 사전에는 방송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반 관련용어들,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 용어 등 1만 여개에 달하는 방송용어들이 1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수록됐다. 당시 편집위원들은 현업을 마치면 곧바로 기술인연합회 사무실로 퇴근해서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편집작업을 했고, 미처 끝내지 못한 내용은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전발간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용어를 쉽게 풀어 쓰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 국문과 출신 외부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용어사전은 1만부를 찍어 국내 방송기술인을 비롯한 모든 방송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1만부가 모두 소진된 후에도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한권 얻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더 이상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았다.

이 용어사전 발간을 계기로 <방송기술인>이라는 격월간 방송기술전문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게 됐으며, 이후 월간<방송과 기술>로 제호를 바꿨는데, 2017년 4월 현재 통권 256호가 발행되고 있으니 27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선배와 후배의 따뜻한 유대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방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흐뭇하다.

당시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여의도 사옥 남문 앞 벤치에서 잠시 쉼을 내어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박건칠, 문정철, 최 천, 김경호, 홍성주, 정재순, 박진석, 홍석진, 최현곤의 젊은 날의 모습들이다.



이재휘(편제)

'뽀뽀뽀'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전체 편성의 5%이상 편성하라는 문화공보부의 지침에 따라 1981년 5월 25일 처음으로 방송됐다.

당시 이렇다 할 유아교육물이 없던 상황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교훈적 내용으로 유아들은 물론 어른들로 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평일 오전 시간대에 방송되다가 90년대 들어 시청률 저조로 주말 프로그램으로 옮겨졌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평일로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다.

2007년부터는 제목을 '뽀뽀뽀 아이조야'로 바꿔 방송하다가 2013년 8월 7일 총 7,754회를 끝으로 32년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초대 뽀미언니 왕영은에서 마지막 강다솜아나운서까지 25명의 뽀미언니들이 진행을 맡았고, 100여명의 PD가 연출을 했다.

이 사진은 1998년 5000회 방송 기념식 장면이다. 우연찮게 주제가를 작사,작곡한 덕택에 평생 인연을 맺게 된 '뽀뽀뽀'. 세월이 많이 흘러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노래지만, (저작권료 수입을 포함해서)내 평생 '제일 잘한 일'이라는 자부심은 변함이 없다.

“자연 속에 힐링파워가 있다”



신 대근
(상임부회장)

“체념한 자의 마음은 고요하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위가 소란하고 흔들려도...

태풍의 눈을 상상하라. 태풍의 한복판은 고요하다. 그런 상상으로, 그런 자세로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어떤 위기에도 혼자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다면 태풍의 위력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시형 저「둔하게 삽시다」중에서

일찌기 우리 사회에 힐링과 세로토닌 열풍을 몰고 왔던 이시형 박사가 2007년 강원도 홍천군에 세운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1박 2일간의 귀한 체험 기회를 가졌다. 이곳은 오로지 스트레스에 지친 도시민들의 힐링을 위해 만든 곳이다. 요즘 문인화로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는 이 박사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힐링과 디지털 시대의 힐링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닌지요?

“힐링이란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간이 흐른다고 달라질 수는 없죠. 현대의 과학문명은 편의, 쾌적, 효율을 추구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 자연 속에 힐링파워가 있다는 내 신념을 바탕으로 선마을을 세웠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꼭 이곳에 오지 않아도 도시에 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약간의 지혜만 발휘하면 됩니다. 힐링을 제일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꼭 (좋은)자연환경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구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치거나 화가 날 때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하는 것도 좋은 명상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눈 떴다가 잠잘 때까지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스트레스 홍수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현명한 대처법을 익혀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을 차분히 하는 연습을 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느긋해 질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박사님은 저서 ‘이시형처럼 살아가’에서 “뇌의 원리로 습관을 트리밍하

면 몸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 인간의 뇌 사용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요?

“오히려 뇌 사용은 더 늘어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인간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이점도 있겠지만,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시대의 역군이었고 격동의 민주화시대를 겪었으며, 이제 정보화 시대에 현역을 떠나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MBC사우회 회원을 포함한 노년들에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되는 말씀을 주신다면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겪어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값진 것을 배우고 얻은 만큼 이제부터는 사회에 공헌하고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베풀고 살면 좀 더 값지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마을에서 만난 현장관리책임자 김동욱 이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선마을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이 박사의 뜻에 따라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민들의 식습관과 마음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생활리듬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TV도 없고 휴대폰 통화도 되지 않는 격리된 산속에서 1박 2일간 유배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지금 같은 혼돈의 시대에 이시형 박사님의 조언이 우리들의 남은 생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번잡한 도시의 일상생활로 되 돌아왔다.

(이 박사님과의 대담 내용은 사우회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선마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heallience.c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선마을총장 이시형박사〉

www.hdbnt.co.kr

국내 NO1. 디지털방송장비 제조 기업

HD&T
HDB & T

[주]에이치디비엔티는 방송장비의 설계 및 개발 보급하는 국산 브랜드회사입니다.

2006년 창립이후 HD방송장비의 개발사업에 힘쓰며 HD급 파노라마카메라와 영상모듈러시스템 그리고 HD급 Audio Monitor 등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각 지상파 (KBS,MBC,SBS)지역국 및 종편/P.P사 등 다수의 방송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방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계/개발에 반영하여 단품하나하나에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방송표준음량 LKFS(라우드니스)을 개발하여 2016년에 지역MBC(14개 지역국), SBS(9개지역국)에 공동 구매 업체로 낙찰받아 공급하였으며, 종편채널과 홈쇼핑,중계차,P.P사에도 다수의 방송장비를 국산화하여 공급하였습니다.

UHD방송시대를 맞이하여 2016년부터 UHD관련된 개발사업에 연이어 착수했으며, 2017년 KOBAT 전시회를 통해 UHD관련된 장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BT-108UHD
12G SDI Distribution Amplifier



BT-100UHD
4K Distribution Amplifier



나의 길



유 무 정(정보)

사원번호 75138을 받아서 23년간, 자식 3형제를 반듯하게 키우고 부부가 약간의 여유로움을 양념으로 얻은 성상星霜이다.

높은 임금과 상여금으로 삶을 열고 께매 준 MBC는 포은자布恩者다. 20대 박사와 S대, 한의대를 마칠 수 있게 해 준 등록금 지원 등등... 처자식만 알고 고생하시는 부모를 챙겨 드리지 않은 불효에 대한 회오悔悟가 깊어 갈수록 MBC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온다.

신문기자를 떠나 MBC에 몸담은 뒤 겪은 음해와 견제는 어두움의 병풍처럼 펼쳐졌다. 그러나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 높은 가치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는 에너지로 바뀌었고, 좌절과 후회는 동양철학사상을 습득하게 안내해줬다. 현실도 피의 방안으로 도학생道學生이 된 것이다.

보도국 북한부장에 있을 때, 국방부 심리전단의 요청으로 6군단에 가서 휴전선 전광판 설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라에 큰 도움을 준 보람도 있었지만, 엄청난 실수 두 가지가 머리와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있다. 뉴스데스크 진행 PD였을 때다. 원고와 녹음이 8시 30분까지도 넘어오지 않아 큐시트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림(필름)체인도 정하지 못한 채 황급히 주조로 갔으니 뉴스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뒤늦게 내려 온 녹음 테이프와 필름을 AD 및 카메라부 담당자와 의논하며 진행하자니 헛갈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득렬 앵커가 CAM 1에서 빙그르르 돌고 CAM 2가 잡고...

대형사고였다. 뉴스데스크 진행 방송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사고가 안 나도록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해매기만 한 나에게 책임이 있었다. 당시 김영수 보도국

장께서 보도국 부장들과 상의 끝에 큰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덕분에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다.

또 하나는 뉴스데스크에서 어떤 아이টে에 대해 설명하는데 15초쯤 말을 한 뒤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 병어리가 되어 앵커를 배경그림으로 변하게 한 사건이다. 최준식 PD가 과감하게 끊고 다음 아이টে으로 넘어가 수습했는데 정말 바보스런 과오였다.

운동권 논리에 젖은 강성 노조원들의 공격을 받은 것도 잊지 못할 일이다. 심의실 TV심의부장으로 일할 때 뉴스데스크의 아이টে과 다른 분문의 프로그램 가운데 김일성 옹호성 내용과 주체사상 냄새가 나는 것을 지적한 데 대해 “보수꼴통”이라고 공격 받은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과 김일성주의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격하는 실력(?)을 “강성노조”가 두려워했던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보도위원으로서 라디오 <2시의 취재현장>앵커를 13개월 하면서 김

일성 왕조체제를 공격하는 멘트를 자주하니 협박도 받았고...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한 26살쯤부터 매년 봄이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위장부분의 통증으로 몹시 고생하여 축구로 해결했다. “유세비오” “유펠레”라는 별명은 기자협회 주최로 해마다 열리는 ‘언론인친선축구대회’에서 얻었다. 보도국 기자 축구팀을 맡아 잔소리를 해 댄 결과 우승을 두세 차례 했고 신대근 사우는 ‘용장勇將 아래 약졸弱卒없다’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정병운 기자의 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

어느 해인가 강원일보와 우승을 다투는 경기에서 신입사원 정동영 기자가 상대방 스트라이커를 양발 옆차기로 뺏어버리게 했던 일이 또렷하다. 김휴선 사우가 바톤을 이어받아 공을 쌓았다. 사내에서는 약 3년간 축구동호회장직을 맡았다. 덕분에 다른 부문의 사우들을 많이 사귀는 효과도 있었다. MBC가 더욱 고마운 부분이다. 시간의 물결 위에 또 다른 희비들이 꽃핀다.

MBC 문화방송 사우회 가족을 위한 특별한 혜택

세란병원 & 올리비움 산후조리원

정밀·암 종합건강검진 - 30만원

〈용종 및 조직 검사 별도〉

CT/MR (택1)	뇌 CT
	저선량 폐 CT
	경추 CT
	요추 CT
	복부지방 CT
	뇌 MRI (오후 예약자에 한함)
	뇌 MRA (오후 예약자에 한함)



대장/특수 초음파 (택1)	수면 대장내시경
	갑상선 초음파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뇌혈류 초음파

공동
내용

복부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자궁초음파, 갑상선검사
골밀도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심전도, 위내시경(수면비 포함)
부인과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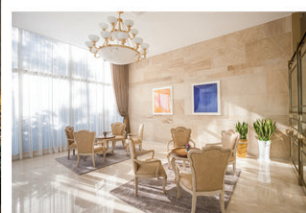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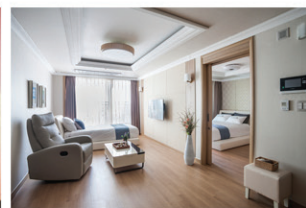
종합 세란병원
SERAN GENERAL HOSPITAL

서울 종로구 통일로 256 / 1577-1987

- 1,000평 규모의 최신 스마트 검진 시스템
-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 진료과별 전문의의 정밀하고 안전한 진단
- 대학병원급의 특수 검사장비
- 정도관리협회 인증 우수 검사실 운용

검진 예약 및 문의 : 1577-0196

진료부분 비급여 20% 감면
성형부터 성형 30%, 피부 20% 할인
관계사 (산후조리원, 메디컬스파) 우대가제공



아기와 엄마를 위한 최고급 산후조리원

올리비움

혜택 : 100만원 상당 룸 업그레이드 또는
140만원 상당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계약일 기준>

상담 및 예약
02-738-3335

서울 종로구 통일로16길 4-1

